



‘적에서 동지로’ 신지애·지은희 듀오
월드컵 정상 가자

국가대표 세계여자골프대회
한국대표...내일부터 남아공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최강 듀오인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 오른쪽)와 지은희(21·왼쪽)가 국가대표전 세계여자골프월드컵 정상에 도전한다.
18일부터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 거리 플레이어골프장(과72·6천466야드)에서 열리는 여자골프월드컵에 한국대표로 출전하는 신지애와 지은희는 작년 KLPGA 투어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선수들.
작년 시즌 18개대회에서 9승을 올렸던 신지애는 세계 랭킹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출전권을 따냈고 파트너로 2승을 거두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지은희를 택했다.
필드에서는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평소 친분이 두터운 두 선수는 필드에서 내려오면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장타와 정교한 아이언샷을 겸비한 신지애와 지은희가 활짝 공함을 이룬다면 세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가져오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이 대회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작년 대회에 아쉬움이 많다. 김영(28)과 함께 출전한 신지애는 1라운

드까지 2위를 달리다 2라운드 1번홀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할 장애물을 경기진행요원이 치우는 바람에 2벌타를 받고 트리플보기로 돌아왔다.
이후 신지애-김영조는 상승세가 꺾이며 힘든 추격전을 벌인 끝에 3위에 그치고 말았다.
다시 찾은 캐리 플레이어 골프장에서 파트너를 바꿔 출전한 신지애가 꺾어야 할 상대는 작년 대회 챔피언 홀리에타 그라나다-셀레스테 트로체(파라과이)였다.
하지만 파라과이의 에이스 그라나다는 작년 LPGA 투어에서 톱10에 세번밖에 들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오히려 작년과 같은 멤버로 출전한 미국의 줄리 잉스타-팻 허스트 조가 관록의 샷을 날리며 우승을 노리고 있고 소피 구스타프손과 마리아 요르트로 팀을 꾸린 스웨덴도 무시 못할 상대다.
작년 LPGA 신인상을 받은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0·LG전자)도 캔디 하네만과 짝을 이뤄 브라질 대표로 출전해 작년 12월 텍사스컵에 이어 한국 선수들과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편 이번 대회 1라운드는 두 선수가 각자의 공을 쳐 낮은 타수를 스코어로 하는 포블, 2라운드는 공 1개를 두 선수가 번갈아 치는 포스트, 3라운드는 다시 포블 방식으로 치러진다.
총상금은 140만달러, 우승상금은 28만달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 임시형



대학 동창...‘동지에서 적으로’

“신인왕 양보 못해”

남자 프로배구 순위 다툼 못지않게 신인왕 맞대결도 뜨겁다.
스몰셋 동갑내기 새내기 임시형(현대캐피탈)과 김요한(LIG손해보험)이 스파이크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남자부 신인왕 후보는 사실상 임시형과 김요한으로 압축됐다. 둘은 인하대 2학년 때부터 3년간 레프트로 활약하며 지난해 소속팀을 전국대회 4관왕으로 이끈 친구
또 서브 리시브 성공률 59.28%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며 지난해 군에 입대한 ‘살림꾼’ 장영기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로 LIG손해보험 유니폼을 입은 ‘얼짱 거포’ 김요한은 계약금 문제로 입단을 거부하다 늦게 코트를 밟았지만 빠르게 적응하면서 매서운 스파이크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14경기 출전 78점 뽑아내
서브 리시브 성공률 60%
장신 활용 고공스파이크
7경기 41득점...수비 약점
지난 프로에 들어와 팀을 달리하면서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임시형은 15일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팀 내 최고인 16점을 뽑아 3-1 승리에 앞장섰다.
프로 데뷔 후 신인 최다 득점이었다고 볼로킹 득점 1개와 유효 블로킹(수비로 연결된 블로킹) 5개를 올리는 등 공격과 수비에서 선배를 못지 않는 매서운 활약을 보여줬다.
2007-2008 시즌 1라운드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뒤 어깨 부상으로 주춤하다 3라운드 후반 컨디션을 회복하며 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뒤 1주간 재활에 힘쓰다 9일 현대캐피탈전과 13일 한국전력전에서 10점씩을 사냥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김요한은 4위로 처진 소속팀에서 특급 공격수 기예르모 팔라스카와 막강한 ‘좌우 쌍포’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7경기에 출장해 41득점으로 임시형보다 37점 적다. 하지만 키 198cm의 높이 장점을 이용한 고공 스파이크로 임시형을 추월해 신인왕을 차지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그러나 서브 리시브 성공률이 38.24%에 그치는 등 수비 불안은 약점으로 꼽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IG 김요한



‘돌아온 산소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작은 철인’ 이영표(31·토트넘)가 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세계 최고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 대회인 잉글랜드 FA컵에서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이영표의 소속팀 토트넘은 16일 오전 영국 런던 외곽 마데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64강전) 레딩FC와 재경기에서 전반 15분 터진 로비 킨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1-0 승리를 거뒀다.
이영표는 출전하지 않았다. 교체 명단에 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달 7일 유럽축구연맹(UEFA)컵 안더레흐트전부터 13일 웰스턴까지 11경기 연속

박지성-이영표
27일 맞대결

선발 출전한 이영표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영표는 최근 6경기엔 풀타임 출전했다.
토트넘은 이영표의 자리인 왼쪽 풀백에 웨일스에서 데러운 19세 신예 크리스 건터를 처음 기용했다.
오른쪽 풀백 파스칼 심봉다는 그대로 나왔다.
이영표도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 직접 맞대결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저 기다리고 있는 맨유와 오는 27일 밤 11시 맨유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서 FA컵 16강 진출을 다툰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나란히 출전한다면 잉글랜드 진출 이후 4번째 맞대결이 성사된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처음 맞선 것은 2005년 10월23일이었다고 당시 박지성이 왼쪽 날개, 이영표도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 직접 맞대결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4월17일 벌어진 두 번째 맞대결에선 박지성이 오른쪽 날개로 출전해 왼쪽 수비수로 나선 이영표와 경쟁을 펼쳤다.
특히 전반 36분 박지성이 이영표를 압박해 발을 빼앗은 뒤 웨인 루니의 골을 도와 팀 승리에 공헌했다.
당시 박지성과 이영표는 그라운드에서 스쳐 지나가며 서로 시선을 달리 둔 채 살짝 손을 맞잡은 사진이 공개돼 국내 팬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가장 최근 대결은 지난해 2월5일 토트넘의 홈 구장인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치러졌다. 이영표는 풀타임을 소화한 반면 박지성이 후반 23분엔야 교체 투입돼 짧은 만남으로 끝났다.

프로농구 트레이드 마감시한 임박

용병들 빅딜
아직은 조용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프로농구에서 4라운드 종료는 단순히 라운드 수가 끝나는 것 뿐 아니라 선수 이적 등록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추가된다. 5라운드 시작일인 23일부터는 선수가 팀을 옮길 수 없게 되고 외국인 선수도 부상 이외에는 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각 구단들은 마지막으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의 대개 5라운드가 올스타전 휴식기가 끝난 뒤에 시작돼 구단들이 경기가 없는 약 1주일간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인 23일부터 5라운드가 시작돼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는 주로 외국인 선수의 교체 또는 트레이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2005~2006 시즌에는 데드라인 직전에 아트 톱(KCC), 조셉 윌(동부), 탕 해밀턴(전자랜드) 등 많은 구단들이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5라운드를 시작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선수간 트레이드로 KCC가 지명했던 신인 양동근이 모비스로 보내지는가 하면 정재호가 오리온스로, 박지현이 전자랜드로 옮기는 이적이 발생해 그 후폭풍은 더욱 거뒀다.
또 1999~2000 시즌에는 선수 이적 마감일이 12월25일이었는데 바로 전날 아직도 ‘크리스마스 빅딜’로 불리는 SK 현주엽과 골드뱅크 조상현의 맞트레이드가 성사돼 많은 화제를 낳았다.
2006~2007 시즌에는 4라운드 종료 당시 거의 모든 팀이 6강에 희망을 걸고 있던 상황이라 서로 조심하다 보니 빅딜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사실상 하위 2개 팀의 경우 6강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과 또 당장 전력 보강이 급한 팀 사이에 선수 교환이 이뤄질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테니스 흑진주’ 리턴샷

세레나 윌리엄스가 16일 멜버른에서 벌어진 호주 오픈 테니스 챔피언십 여자단식 2라운드에서 중국의 위엔밍에게 리턴샷을 하고 있다. 윌리엄스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전남 이싸빅 영입

전남 드래곤즈가 크로아티아 출신 베테랑 수비수 이싸빅을 영입했다.
1998년 한국 무대에 데뷔한 이싸빅은 포항, 성남, 수원을 거치며 K리그에서 5시즌 동안 통산 266경기 출전·9득점·7도움을 기록했다. 전남은 이싸빅의 영입을 통해 중앙수비를 강화하고 하프백, 시몬 등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로 공격라인을 구성,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천수 첫 도움

이천수(27·페예노르트)가 네덜란드 프로 축구 진출 이후 첫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네덜란드컵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천수는 16일 네덜란드 헬몬트에서 치러진 네덜란드컵축구 16강전에서 아마추어팀인 SV 피르네를 상대로 선발출전해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전반 9분 멋진 측면 크로스로 조나단 데 구즈만의 결승골을 도왔다. 페예노르트는 4-0 대승을 거뒀다.

골프·크노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매매, 골프장 시세/기타
관 주 3,450, 송림비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승 주 8,200, 도보양 2,100
상담전화 (062)351-0095